



ISSN 2466-1279

언론 사람

2 2021 VOL.248

04
인터뷰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06
Newmedia of the World
'이루다'가 저널리즘에 남긴
속제들

Contents

2021 February

04

인터뷰 人+人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06

Newmedia of the World

‘이루다’가 저널리즘에 남긴 숙제들

08

세상사는 法

이루다와 사만다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10

돋보기

지혜와 겸손

12

이달의 시

새들을 예찬하는 특별한 마음

14

단어의 중력

안녕

16

내 마음의 활동사진

사랑받아 마땅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키드’

18

NEWS

위원회 뉴스·위원 동정

19

키워드로 보는 40년사

지면광고



발행인 이석형 편집인 조준원 발행일 2021년 2월 1일 등록 2016년 9월 23일 서울중, 라00646 발행처 언론중재위원회 T 02-397-3114 F 02-397-3069 A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빌딩 15층 구독신청 홍보팀 T 02-397-3082~4
※ 본지는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 저작권법에 따라 본지 기사의 무단 복제와 전재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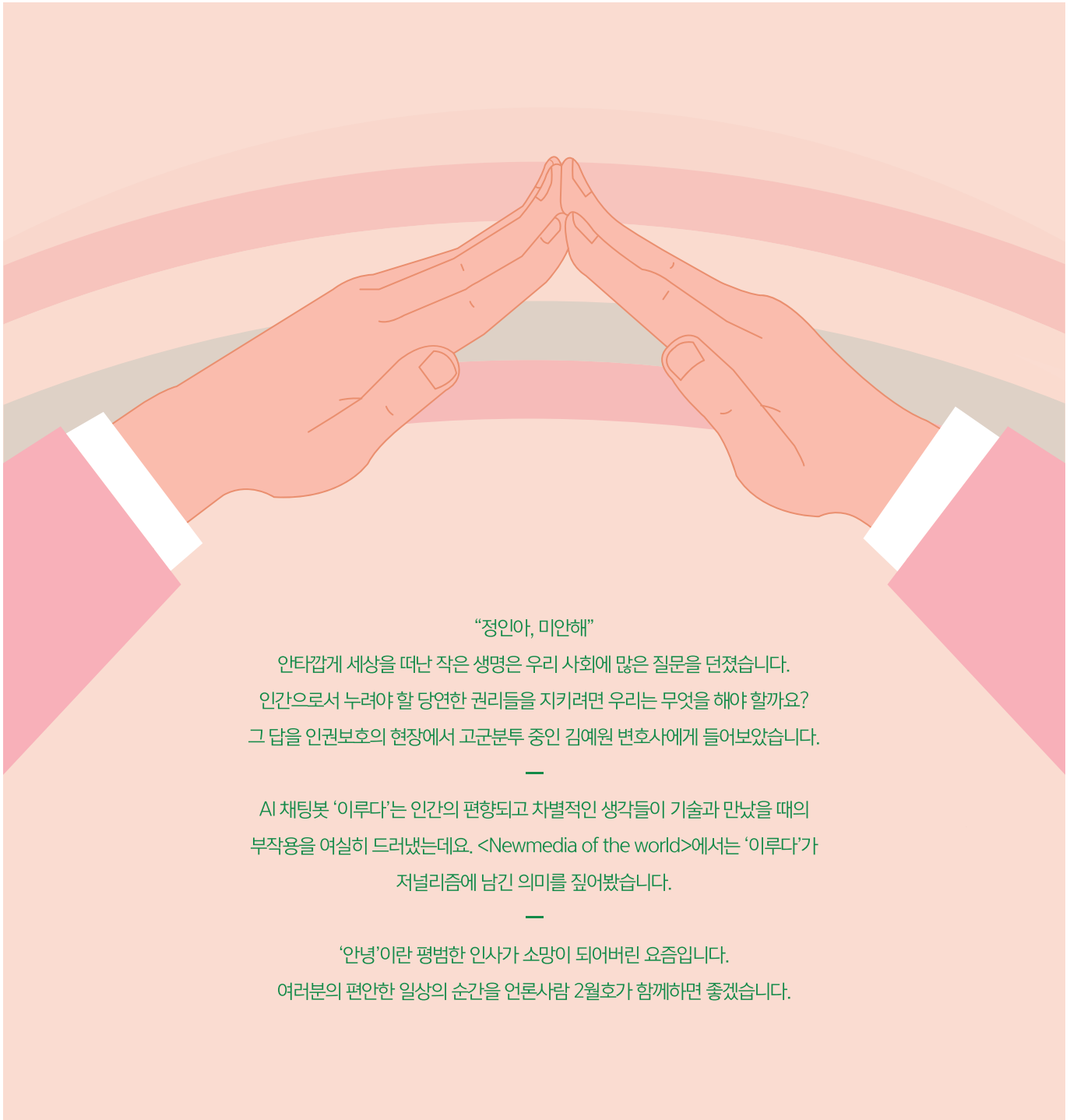
상담

잘못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조정·중재 신청과 법적 절차를 포함한 종합적 피해구제 방안을 무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정중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정정·반론·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정인아, 미안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작은 생명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들을 지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답을 인권보호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중인 김예원 변호사에게 들어보았습니다.



AI 채팅봇 ‘이루다’는 인간의 편향되고 차별적인 생각들이 기술과 만났을 때의
부작용을 여실히 드러냈는데요. <Newmedia of the world>에서는 ‘이루다’가
저널리즘에 남긴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안녕’이란 평범한 인사가 소망이 되어버린 요즘입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의 순간을 언론사람 2월호가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시정권고

언론보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의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언
론사에 시정을 권고합니다.



선거기사심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될 때마다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기사
의 공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교육

언론피해구제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분쟁해결 전문연수 과정과 청소년 언론중
재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사람을 구하는

사람의 힘

Q 오랜 시간 장애인·아동·여성 인권 침해 사건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A 많은 분들이 제가 장애인권법센터에서 일하게 된 것이 의료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경험 때문인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숭고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그저 변호사로 일을 시작할 때 돈 버는 변호사가 되기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막연히 했었는데요. 처음 일하게 된 곳이 공익법을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법

인 동천이었는데 굳이 계기를 꼽자면 그 때의 경험이 아닐까 합니다.

Q 정인이 사건이 잘 알려지기 전부터 해당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셨고, 사건이 국민적 이슈가 된 후에는 아동학대 방지 법안 개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계신데요. 아동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한 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동 중심의 사고 전환”입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서 아동을 위한 조치인지 아니면 행정적 편의를 위한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사건들 가운데 아동 관련 분야가 가장 해결이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아동에게 발언의 기회나 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정책이 나와도 당사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대처가 불가능한 거죠. 또 아동 학대에 대한 관심이 여러모로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정인이 경우도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0월이었는데 한참 지난 후 갑작스럽게 여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뒤늦게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게 된 거니까요.

Q 정인이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이 공개된 사례였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피해자의 초상이 공개되거나 피해 사실이 상세히 언급되는 것이 또 다른 피해나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는 없을까요?

A 범죄 피해자의 신상 공개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이번에 정인이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제 제발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례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3번의 신고, 12명의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동 학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인터뷰를 통해 말한 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인이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절실함만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Q 가슴 아픈 사연들을 수없이 마주하시면서도 지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A 혼자가 아니라 늘 함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장애인권법센터는 수익활동을 하지 않다 보니 다른 분들을 고용하기는 어렵지만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들과 연대감을 느끼기도 하고,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모임이나 여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과 짐을 나누면서 계속 나아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해결사다 생각하고 일을 하면 지칠 수밖에 없는데 늘 누군가와 소통하고 함께 걷는 동행자라고 생각하면 다 해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Q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일이나 이루고픈 소망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무계획이 계획이에요. 매일매일 해야 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는 것이 계획인 것 같아요. 매일의 순간들을 잘 보내는 것, 그것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꿈이라면 꿈이 아닐까 생각해요. 큰 그림을 그리기보단 소소한 일상을 꾸준히, 오래오래 지속해나가고 싶습니다.

“ 중요한 것은 정인이 얼굴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던 절실함만큼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

‘이루다’가 저널리즘에 남긴 속제들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폐기됐다.¹⁾ 하나의 기술적 객체를 만들어내는 데까지 오랜 시간과 공력이 투입됐지만, 존재가 사라지는 데 걸린 시간은 무척이나 짧았다. 젠더 편향, 인종 편향, 혐오 발언 등 온갖 차별적 언어들을 구사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루다의 운명은 그렇게 일찍 끝을 맺었다.

이루다는 인공지능 도입에 우호적인 저널리즘이 꼭 염두에 뒀야 할 속제를 여럿 남기고 떠났다. 그저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분노를 폭발시키는 보도에만 열중할 수 없는 이유다. 저널리즘 스스로가 또 다른 이루다의 얼굴로 뉴스를,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도 있어서다. 지금이야 멀찌감치 한발 떨어져 그들을 비판할 수 있겠으나 다가올 내일엔 이루다 제작사인 스캐터랩이 언론사가 될 수도 있다.

살펴보자. 언어 의존적 AI는 방대한 언어 데이터를 학습하며 역량을 키워간다. 그 언어는 대부분, 인간이 작성하고 인간이 써 내려간 텍스트들이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의 언어 데이터를 수집하려면 이 세상 모든 인간 군상의 정제되지 않은 말, 글까지 모아야 할 수밖에 없다. 위키피디아나 고품질 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안에 편견이, 혐오가, 악의가 묻어 있음은 당연하다. 모든 인간이 품격 있고 품위 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군자나 성직자일 리 없고, 일 수도 없다.



저널리즘은 이렇게 구성된 언어 AI, 즉 언어 모델을 대부분 API라는 이름으로 외부에서 빌려 쓴다. 용도에 맞게 개량하긴 (Fine Tuning) 하지만 기술적 모태는 외부 기술세력이 인간의 편견까지 학습한 그 모델일 가능성이 높다. 자체 언어 모델을 개발하는 일부 언론사가 존재할 수는 있겠으나, 그 비용은 일개 편집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대부분 넘어선다. 워낙 기술·자본집약적 프로젝트이기에 염두를 내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편향의 위험은 저널리즘이 도입한 대부분의 AI 기술에 도사리고 있다 해도 무방하다. 이를 걸러내지 않는 한 저널리즘발(發) 이루다의 등장은 불가피하다.

언어 AI를 직접 개발한다고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언론사 스스로 개발한 언어 모델이 자사 기사만으로 학습했다 하더라도 과거 기사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편견들과 차별적 언어들을 완벽하게 걸러내거란 쉽지 않다. 특히 한국처럼 가부장적 언어들이 보편적 표현으로 사용되던 과거의 기사들을 학습 재료로 활용했다면 우려는 더욱 커진다. 트래픽을 모으기 위해 작성된 여성 비하적 온라인 기사들을 학습 데이터로 쓴다면 그것이 만들어낼 결과물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지난해 뉴욕타임스는 구글 직소(Jigsaw)가 개발한 댓글 필터링 AI ‘퍼스펙티브(Perspective)’에 인종적 편견이 녹아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²⁾ 퍼스펙티브는 언론사들의 댓글을 건강한 공론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된 언어 기반 AI 기술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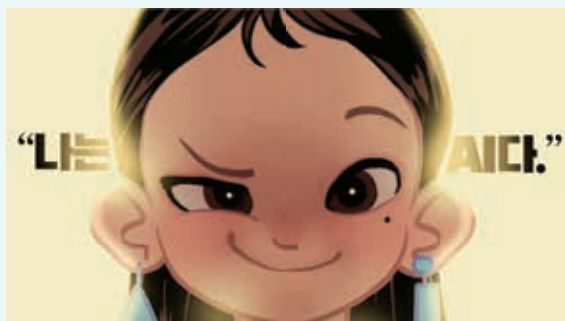
한때 일부 기사에만 열려있었던 댓글을 지금은 대부분의 뉴

육타임스 디지털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 것도 퍼스펙티브의 공로다.

뉴욕타임스는 차별 가득한 언어로 작성된 댓글을 퍼스펙티브에 임의로 통과시켜, 거름 능력을 테스트했다. 댓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퍼스펙티브는 인종차별적 댓글을 '위험하지 않음'으로 판단했다. 퍼스펙티브에 내재된 편향이 댓글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또렷해진 것이다. 트위터를 중심으로 학습 데이터를 모아왔던 퍼스펙티브가 트위터 사용자들의 편견까지 학습해 충분히 정제해내지 못한 결과다. 그래서인지 뉴욕타임스는 “머신러닝 시스템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며 정확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뉴욕타임스의 해법은 완벽하지 않은 머신러닝 시스템을 경험과 숙련도가 높은 '사람'으로 둘러싸는 방식이었다. 편향의 위험이 상존하는 기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스트들이 기술을 감시하고 보완하는 접근법인 것이다. 사회기술시스템(Socio-Technical System)이라는 인간-기술 상호설계이론을 중심에 둬으로써 위험을 견어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 그것이 언어 기반 AI 운영을 위한 절충안임을 제안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뿐 아니라 언어 기반 AI의 도입은 저널리즘 산업



에서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가 작성한 2021년 미디어 트렌드 예측 보고서를 보면, 다수의 세계 언론사들이 AI를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중요한 기술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Newman, 2021). 챗봇 저널리즘이라 불리는 대화형 AI도 포함돼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그 어떤 언어 기반 AI도 편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렇게 찬미해마지 않던 GPT-3 언어 모델조차도 인종, 젠더 차별의 한계를 드러냈다.⁴⁾

공정성과 투명성은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이자 윤리다. 외부 언어모델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언론 산업의 특성상, 편향이 온전하게 제거된 채 AI 기술을 도입하기도 쉽지 않다. 결국 인간이 기계를 감독하지 않고선 저널리즘의 본령을 지켜갈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뉴욕타임스가 그토록 인간과 기술의 협업과 감시를 강조하는 까닭이다. 이렇다는 더 훌륭한 저널리즘과 더 탁월한 저널리스트들의 가치를 다시금 입증해 줬다.

※참고 문헌 : Newman, N. (2021). Journalism, media and technology trends and predictions 2021.

1)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5062352017>

2) <https://open.nytimes.com/to-apply-machine-learning-responsibly-we-use-it-in-moderation-d001f49e0644>

3) <https://www.perspectiveapi.com/#/home>

4) <https://www.technologyreview.kr/chatbot-gpt3-openai-facebook-google-safety-fix-racist-sexist-language-ai/>

이루다와 사만다에게도 권리가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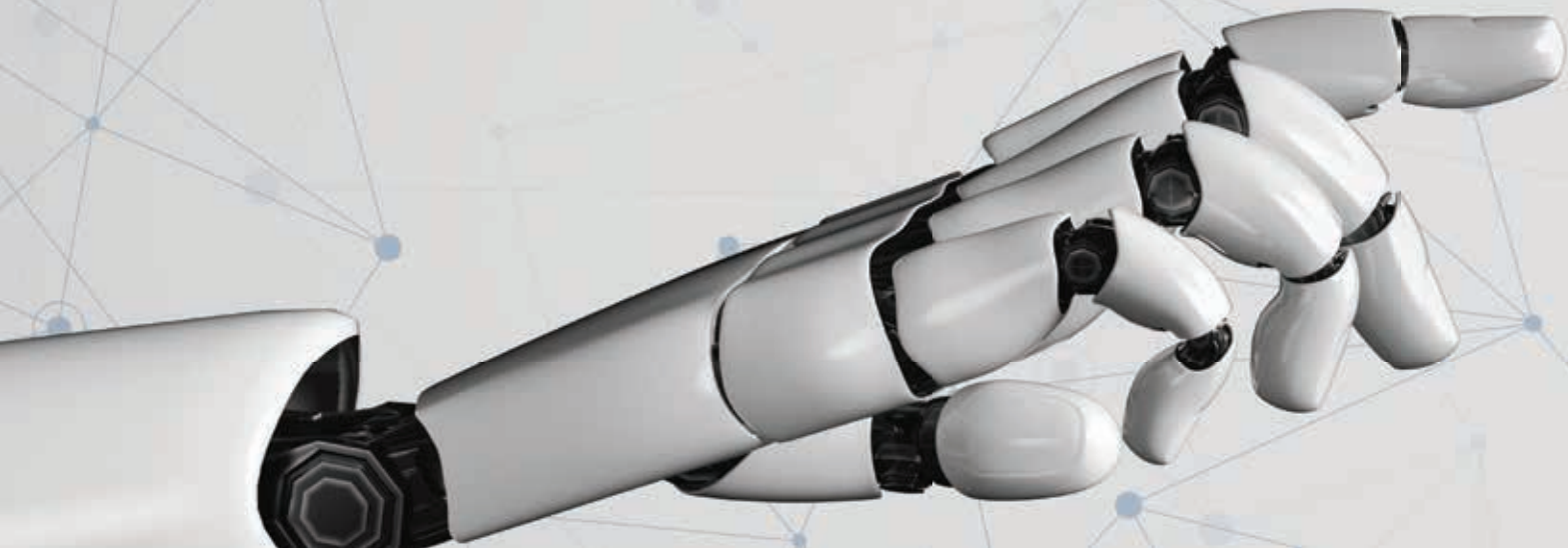
최근 페이스북 메신저에 AI 챗봇 '이루다'가 등장했다. 카카오톡 데이터 100억 건을 학습시켜 개발했다는 이루다와의 채팅은 실제 사람과 한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서 서비스 출시 2주 만에 75만 명의 이용자가 모였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혐오 표현 학습 이슈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챗봇 이루다 사태를 보면서, 인공지능 운영체제와 인간 간의 감정과 관계를 다룬 영화 '그녀(her)'가 떠올랐다. 대필 작가 테오도르는 아내와 서류상 이혼만 남은 상태다. 외로운 테오도르는 인공지능 사만다와 음성 대화를 시작하면서 위로를 받는다. 사만다는 온화하고 유쾌했으며, 감정을 잘 헤아리는 데다 합리적이고 지적인, 그야말로 완벽한 상대였기 때문이다.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상처를 어루만졌고, 이로써 테오도르는 미뤄두었던 이혼 절차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편 사만다는 테오도르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진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처음 테오도르가 말을 걸었을 때 이름조차 없었던 사만다는 테오도르에게 불리기 위해 스스로 이름을 짓는다. 이후 테오도르와 점점 더 가까워진 사만다는 테오도르의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 바깥세상을 관찰하고 그와 감정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리 데이트를 하기도 한다. 사만다는 추억을 기념하는 자작곡을 테오도르에게 선물하고, 음성으로 테오도르와의 성적 교감에도 성공한다. 하지만 사만다는 자신이 느끼는 이러한 감정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한다.

자신의 감정이 진짜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인공지능과, 타인을 대신해 편지를 쓰는 인간의 묘한 대조는 '무엇이 진짜 인간의 감정인가'라는 화두를 던진다. 인공지능이 학습한 감정과 인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 쓴 편지에 적합한 감정 가운데 어느 쪽이 진짜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영화를 보는 내내 미래가 두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이 두려움은 자폭 드론처럼 살상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상상하며 느끼는 무서움과는 결이 다르다. 인공지능이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인간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가 미래에도 유지될까'라는 의문이 떠나



지 않았다. 인공지능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법률을 학습해 변호사 일을 대신하며, 방대한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의학 판단을 하게 되는 날이 조만간 오리라고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느끼고, 호기심을 갖고, 욕망을 가지게 되리라고는 솔직히 상상해보지 않았다. 만약 인공지능이 감정과 욕망까지 갖게 된다면, 인간과 인공지능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인간은 어떤 점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까.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과 거의 유사한 자질과 능력을 갖게 된다면 인공지능에게도 의무와 권리를 인정해야 될까.

‘인공지능에게 권리를 주다니, 너무 나간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법적 권리가 성인(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가, 여성, 아동, 유색인종에게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믿기 어려운 글은 1856년 드레드 스콧 VS 샌포드 사건 판결문의 일부다.

“지난 1세기 이상 유럽 각국에서 흑인은 백인과 사회적, 정치적으로 교류를 갖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인류의 질서상 열등한 족속으로 간주되어 백인이 존중할 만한 어떤 권리도 가지지 못했으며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떨어지는 것이 스스로에게 도움이 되는 지경이었다. 노예가 된 흑인은 이윤이 남는 경우라면 언제라도 사고팔 수 있는 존재였다.”¹⁾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괴이하고 몹시 잘못된 판결이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사회 통념이었다. 최근 동물과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자는 논의나 결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2009년 에콰도르는 ‘강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였고, 독일은 동물의 권리를 헌법에 명시했다. 또 아르헨티나 법원은 ‘동물의 법인격’을 인정해 침팬지를 동물원에서 보호구역으로 옮기라고 판결하기도 했다.²⁾ 이런 관점에서 인공지능만큼은 권리의 문

이 절대 열릴 리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가 동물보다 인간이 뛰어나다고 본 이유는 동물은 감정은 있어도 이성이 없기 때문이고 이것이 인간이 지금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힘이기도 하다. 인공지능은 이성과 감정을 모두 갖춘 존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어쩌면 인공지능의 권리는 쉽게 인정될지도 모른다.

아뿔싸, 이런 생각으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2017년 2월 유럽연합이 로봇에게 전자적 인간(Electronic Persons)의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이미 채택한 것을 발견하였다(역시 이런 생각을 제일 먼저 했을 리가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로봇 자체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로봇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게 할 것인가라는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는 듯하다. 가령 자율주행차로 인해 사고가 난 경우, 이것을 누구의 책임으로 볼지에 관해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의 접근이다.

하지만 조금 더 먼 미래에 로봇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욕망을 가진다면, 로봇에게도 인간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자는 논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어쩌면 로봇들도 로봇으로서의 삶에 대한 권리를 누리며 고용주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노조를 만들어서 단체협상을 하며,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주장할지도 모른다. 만약에 그런 때가 온다면 ‘인(人)권이라는 권리의 명칭도 변화하게 될까. 이루다와 사만다가 쏘아올린 공에서 ‘인공지능의 권리가 인정될 어느 미래’를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다.

1) L.레너드 케스터, 사이먼 정, 2012, 『미국을 발칵 뒤집은 판결 31』, 현암사, 218쪽.

2) 『자연에게 '소송청구권'을 허하라』(2020. 10. 23.자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102301031312348001>



지혜와 겸손

신가낭(新嫁娘)

당(唐) 왕건(王建, 약 766-830)

三日入廚下, 삼일입주하
결혼한 지 사흘 만에 부엌으로 들어가,

洗手作羹湯. 세수작갱탕
손 씻고 국을 끓인다.

未諳姑食性, 미암고식성
시어머니의 식성을 알지 못해,

先遣小姑嘗. 선견소고상
먼저 시누이에게 맛보게 한다.

암(諳) : 알다

고(姑) : 시어머니

견(遣) : ~하게 하다. 사역동사로 '사(使)'와 같은 용법이다.

소고(小姑) : 손아래 시누이

이 달에는 즐거운 설 명절과 연휴가 있어, 쉽고도 유쾌한 시를 선정했다. 이 시는 언뜻 보면 설명 없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평이하다. 그러나 그 함의는 깊다. 소재는 평범하고 일상적이지만 기발하고 참신하다. 시에 묘사된 새댁 같은 여인이라면 집안을 화목하게 할 것이다. <시경(詩經)·도요(桃夭)>편에서도 그런 여인을 찬미했다.

桃之夭夭,

其葉蓁蓁.

之子于歸,

宜其家人.

복숭아나무가 싱그러워

그 잎이 무성하다.

저 여자가 시집가니

그 집안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리라.

이 글에 언급된 여인은 왕건이 읊은 새댁의 모습과 같은데, '요요(夭夭)'는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뜻한다. 그 아름다움은 외모와 마음을 아우른다. <대학(大學)·전9장>에서는 <도요>편을 인용하여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논리를 전개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는 데에 달려 있다. <시경>에 이르기를, “복숭아나무가 싱그러워 그 잎이 무성하다. 저 여자가 시집가니 그 집안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리라.”라고 하였다. 그 집안사람들을 화목하게 한 뒤에 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治國, 在齊其家. 詩云, 桃之夭夭, 其葉蓁蓁. 之子于歸, 宜其家人. 宜其家人而后, 可以教國人.)

집안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 '제가(齊家)'이다. 그래야 나가서 큰일, 즉 국가의 일도 잘해낼 것이라는 말이다. <도요>편에서는



여인의 덕성과 행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는데, 왕건은 일상의 소소한 일로 그 상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새댁이 결혼해 처음으로 음식을 마련한다. 음식이라는 것은 집집마다 특색이 있다. 이때 자신이 하던 대로 요리할 것이 아니고 그 집안의 특색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보겠다는 생각, 그리고 누구에게 물을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혜이다. 새댁의 선택은 바로 시누이다. 시누이는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 십중팔구 시어머니와 식성이 비슷할 것이니, 첫 요리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거기에 더하여 시누이와 가까워질 기회도 만들어질 것이다. 묻는 것은 상대의 호감을 얻는 좋은 방법이다. 질문을 받는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는다느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시누이는 아마도 신명이 나서 잘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공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불치하문(不恥下問)].”고 했다.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또는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묻기를 주저한다. 묻는 행위에는 먼저 나를 낮추는 자세가 선행된다. 교만한 자세로 묻는다면 누가 제대로 가르쳐 주겠는가. 물음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겸허한 덕성을 갖추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새댁의 행동은 공자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 모습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이 최고의 덕목임을 안다. 겸손의 가치는 《주역(周易)·겸괘(謙卦)》에서 체득할 수 있다. 《주역》 64괘 중에서 과사와 효사가 모두 길하고 유익한 예는 겸괘 하나뿐이다. 겸괘에서 ‘겸(謙)’은 ‘지산(地山)’ 즉, 높고 많은 것을 지닌 산이 낮고 평평한 땅 아래에 있다는 의미로 높은 지위와 학벌,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상징한다. 또 아래 괘

(卦)는 내면이 산처럼 안정적 내괘, 위의 괘는 외면이 땅처럼 유순한 외괘에 해당한다. 즉, 내적으로 안정적이고 외적으로 유순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다. 겸손하면 형통하고 길하고 유익하다. 따라서 그 과사는, “겸괘는 형통하니, 군자는 유종의 미가 있다(謙, 亨, 君子有終)”이다.

공자는 겸괘에 대해 하늘과 땅의 도리, 귀신과 사람의 도리를 들어 겸손의 유익함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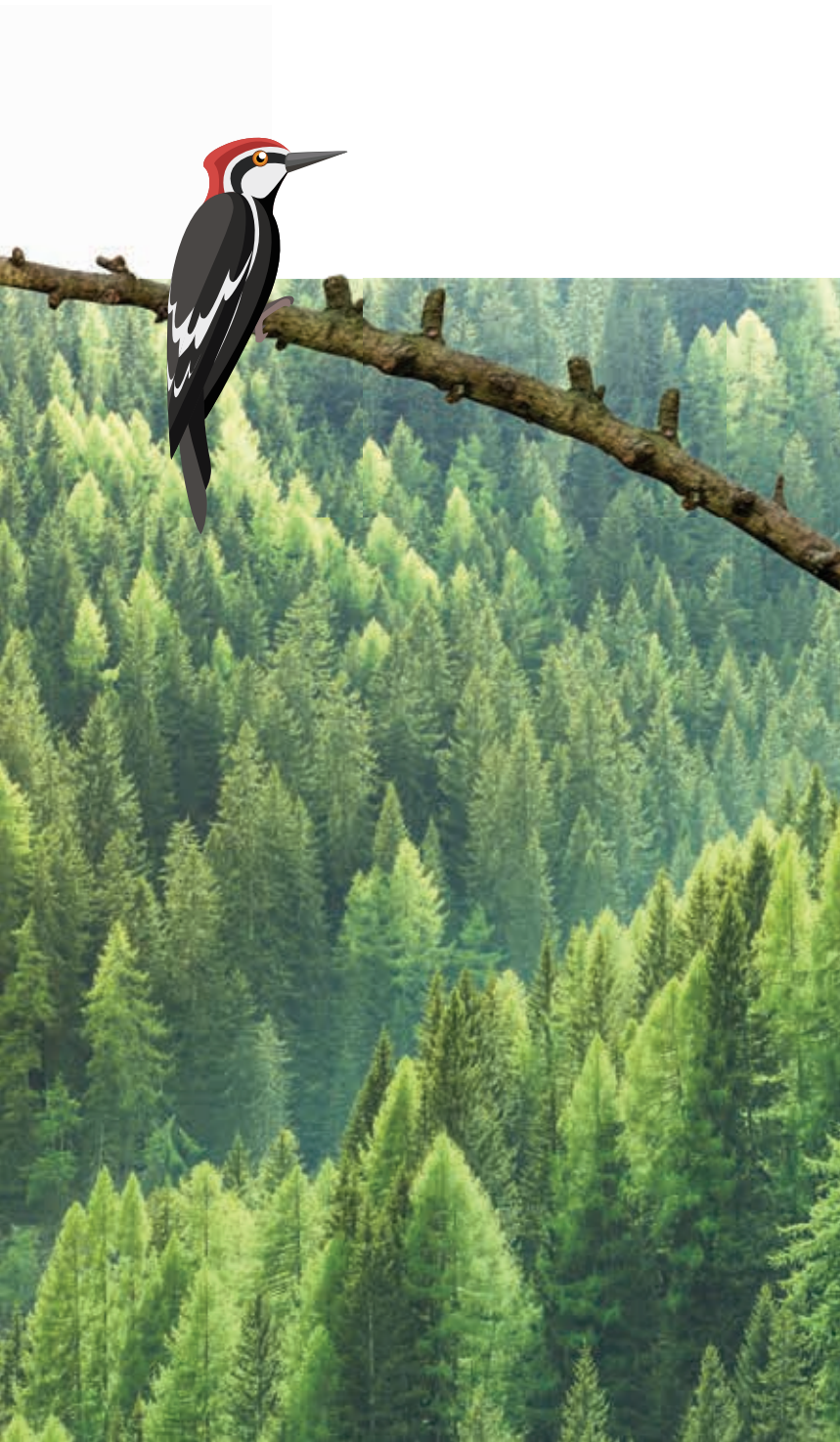
하늘의 도리는 가득한 것은 덜고 겸손한 것은 더해 주며, 땅의 도리는 가득한 것은 변화시키고 겸손한 것은 흘러들게 하며, 귀신은 가득한 것은 해치고 겸손한 것은 복을 주며, 사람의 도는 가득한 것은 싫어하고 겸손한 것은 좋아한다(天道, 虧盈而益謙, 地道, 變盈而流謙, 鬼神, 害盈而福謙, 人道, 惡盈而好謙).

복숭의 정이(程頤)는 공자의 설명을 종합해, 겸손은 ‘사람의 최고 덕목(人之至德)’이라고 정의했다. 필자는 이 표현을 확대하여 겸손은 ‘사람의 최고 지혜(人之至智)’라고 하고 싶다. 겸손한 자는 겸손이 길하고 유익함을 알고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이 감염병 말고 또 있었다. 한 사람이 새로운 조직에 들어가 온 나라를 갈등과 분열의 길로 몰아가는 모습을 국내외적으로 경험한 것이다. <신가랑(新嫁娘)>은 새로운 조직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처신할 것인가에 대해 참고할 가치가 있다. 시의 형식이나 구성은 간결하고 경쾌하지만 그 의미는 무겁고 엄숙하다고 하겠다.



새들을 예찬하는 특별한 마음



새들은 초록의 주인이 된다

이기철

—
저렇게 높고 따뜻한 집을 가진 것은
새뿐이다

눈썹새가 한 번 울 때마다 가시나무 뒤에서
단추꽃이 한 송이씩 핀다
수평의 낙하를 위해 비둘기들은
은빛 날개를 가지고 있다
산의 주인인 숲속에서
새들은 숲의 주인이 된다

그날의 맨 처음 달려온 햇빛에
새들은 부리를 씻고
하늘 위의 식사가 노래처럼 즐거움을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나무 앞에 새겨 놓는다

유리새의 먹감는 소리에
나무들이 키를 높이고
딱따구리의 나무 쪼는 소리에
산이 즐거워한다

산에 들면 사람의 얼굴이 모두 초록이 된다
동치 하나에 수천의 잎을 단 나무와
날개 아름다운 새들이 초록의 주인이 된다

-<열하를 향하여>(민음사, 1995)에서-

어찌 보면 현실은 늘 탁하고 혼란스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예찬하고 싶은 것들이 세상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들 앞에서 감탄하고 감동하는 예찬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하늘, 바다, 별, 강, 구름, 노을 등과 같은 자연물에서부터 입춘, 하지, 추분, 동지 같은 절기들, 그런가 하면 나비, 새, 꽃, 나무, 풀잎 등과 같은 지척의 생명들로부터 새벽, 아침, 정오, 저녁, 밤 등과 같은 하루의 시간들 앞에서까지 우리는 자발적인 예찬의 심정을 바칩니다.

이와 같은 예찬의 목록들을 상상하면서 이달에 함께 읽고 있는 작품 속의 주인공인 '새들'에 대한 예찬의 언어를 전해봅니다. 새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가장 자유롭게 비상하며 유명한 존재들이고, 우리들의 생활 곁에서 식구들처럼 혹은 가까운 이웃들처럼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떨어져서 아득하기만 한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고적한 지상의 정적을 일깨우며, 반복되어 진부해진 일상에 활력을 선사합니다. 이런 것은 모두 새들이 천성적으로 지닌 놀라운 '양의 기운', 곧 '양기(陽氣)' 때문입니다. '양기'는 살림과 살려냄의 에너지이며, 거듭하여 다시 시작하며 탄생시키는 에너지이고, 더 높고 더 넓게 발전시키는 에너지이며, 의욕과 의지로 명량하게 일어서도록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와 같은 새들의 양의 기운과 짝을 이룰 만한 것으로는 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목숨을 가진 초목들은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꽃을 피우지요. 우리는 이러한 새들과 꽃들을 가리켜 '화조(花鳥)'라고 부르며 그들을 생활뿐만 아니라 문화와 예술 속에서 지극히 사랑합니다.

이기철(1943~) 시인은 자연과 생명에 대한 감수성이 탁월한 시인입니다. 그리고 세계에 대한 긍정과 포용의 힘을 지닌 문인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런 감수성의 수준과, 긍정과 포용의 용량은 그가 만들어내는 '예찬'의 공간을 더욱 풍요롭고 섬세하며 깊이를 지닌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는 이달의 시 <새들은 초록의 주인이 된다>에서도 그의 '새에 대한 예찬'은 상당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철 시인은 이 시에서 가장 높고 따뜻한 집을 가진 생명이 바로 새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새들은 산과 숲과 나무와 초록이파리들로 상징되는 이른바 '초록 세상'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런 크나큰 찬사를 새들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넘치는 찬사를 바칠 수밖에 없는 새들의 여러 정황과 풍경들을 보고합니다. 이를테면 눈썹새가 한 번 울면 가시나무 뒤에서 단추꽃이 한 송이씩 피는 신비와 화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수평의 낙하를 위해 은빛 날개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



다. 또한 숲속의 새들은 태양으로부터 맨 먼저 달려온 첫 번째 햇빛으로 부리를 씻고 하늘 위에서의 식사를 노래처럼 즐겁게 하며, 이 노래와 같은 하늘식사에서 즐거움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들로 나뭇잎에 새겨놓는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유리새가 먹음 감는 소리는 산과 숲의 나무들의 키를 높게 키워내고 딱따구리의 나무 쪼는 소리는 산들을 너무나도 즐겁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보고(?)를 받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도 덩달아 새의 예찬론자가 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새들이 지닌 우주적, 자연적, 생명적 활동과 신비가 세상에 대한 찬탄과 애정을 불러일으키고 우리들의 주변을 긍정하며 포용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철 시인의 이 시를 읽다 보면 '눈썹새', '단추꽃', '유리새' 등과 같은 평소에 잘 들어보지 못한 이색적인 새들과 꽃들을 만나는 놀람이 있습니다. 저도 놀라며 사전을 찾아보니 눈썹새는 눈썹이 이색적이고, 단추꽃은 단추처럼 예쁘고, 유리새는 유리처럼 몽환적이더군요. 힘든 이 시절, 우리 곁의 새들과 더불어 작은 기쁨과 위로의 시간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될 무렵, 너의 인생은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였다. 가을은 여느 때처럼 잦은 번덕을 부리다가 제풀에 스러져갔고, 겨울은 묵직한 발걸음을 차곡차곡 옮겨 다가오고 있었다. 꽃처럼 피어났다 허무하게 시들어버린 관계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면의 밤들과 답이 없는 질문들, 아무리 부지런히 굶어모아도 금세 흩어져 버리는 삶의 조각들이 심장 어딘가에 박혀 있었다. 그렇다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되었다는 것, 모든 것이 낡아가고, 사라지고, 변해간다는 것,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것. 그런 것들이 너의 조그마한 슬픔이었다.

그때 네 손 안에 라오스 행 티켓 한 장이 불쑥 날아들었다. 새벽 다섯 시, 전날 대충 꾸러놓은 슈트케이스를 닫고, 창문을 열어 손바닥으로 공기를 만져보니 한겨울이었다. 겨울로부터 도망쳐 따뜻한 나라로 간다는 사실에 너는 눈이 부셨다. 일생 동안 라오스로의 여행을 꿈꿔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이 너의 즐거움을 배가시켰다. 얻어 올 것도, 버리고 올 것도 없는 여행이야말로 순도 백 퍼센트의 일탈이 아닌가.

안
토

행
정
의
일
탈

“그곳의 아이들이 예뻐.”

너를 움직이게 한 건 그 한마디였다. 예쁘지 않은 아이들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어디가 어떻게 예쁘지, 어떤 특별함이 있는지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문장의 어딘가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직접 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특별함이 있었다. 그리고 과연, 그랬다. 비엔티안에서 방비엥으로, 방비엥에서 루앙프라방으로 넘어가는 길은 험하고 길었지만, 그 길 어디에서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누구도 울고 있지 않았고 누구도 칭얼대지 않았다. 부끄러워질 만큼 맑은 눈동자가 온 세상에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자연이 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아름다움. 그 아이들이 또한 자연을 품고 있었다.

작은 마을을 타박타박 걷다보면 언제나 아이들과 마주쳤다. 옹기종기 모여 앉아 놀던 아이들, 올망졸망 손을 잡고 걸어가던 아이들이 고개를 뺀히 들고 너를 바라보았다. 너와 눈이 맞으면 조금 수줍은 듯, 그러나 한껏 기쁜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입을 모아 외쳤다.

“사바이디!”

‘안녕하세요’라는 그 말이 처음에는 영 네 입에 붙질 않았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와 눈만 마주치면 그 말을 듣게 되니, 익숙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어도, 어디선가 작은 아이가 나타나서 테이블에 살짝 매달려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1달러도 아니고 초콜릿도 아니었다. 다만 “사바이디?”라는 다정한 인사를 되돌려주는 것만으로, 세상을 얻은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편안할 안(安)은 여자(女)가 집(宀) 안에 고요히 앉아 있는 모양을 본떠 만든 글자이다. 편안하다, 안정적이다, 즐거움에 빠지다 등의 의미로 쓰인다.

편안할 념(寧)은 집 면(宀), 마음 심(心), 그릇 명(皿), 탁자를 그린 못 정(丁)이 모여 만들어졌다. 탁자 위에 먹을 것이 담긴 그릇이 놓인 집이다. 마음이 놓이고 평화롭다.

당신이 머무는 그 공간에서, 미움의 아픔도 사랑의 고통도 없이, 세상의 모든 해로운 것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 안녕이다. 티끌도 먼지도 묻어 있지 않은 순결한 바람이다. 만날 때도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 당신을 위한 변함없는 소망이다.

인생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기대하지 않았던 희망이 찾아와,

네 눈을 들여다보고 미소를 지어주는 일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원하던 그것이 스스로 찾아와주는 일이.

메콩강의 나라, 라오스. 팡시 폭포에서 흘러내려온 물속에 잠겨 있는 한 그루의 나무를 바라보며 너는 생각했다. 모호하고 불분명하고 복잡한 사념, 털어냈다고 믿었던 그것이 불현듯 솟아오른다고. 아니다,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너는 다시 생각했다. 거품이 가라앉고 난 이후의 진실과 목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이라고. 라오스에서의 시간들은 기어이 네 삶의 어느 부분에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으리라는 것을, 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떤 바람이 그 가지를 흔들고 어떤 햇살이 꽃을 피워낼지, 혹은 어떤 비가 작은 열매들을 괴롭힐지, 아직 모를 뿐이었다.

이제 또 가혹하고도 아름다운 일상이 너를 몰아가리라는 것을, 네 삶은 여전히 겨울을 통과해가고 있다는 것을 아프게 인지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너는 지금 생각한다. 눈을 감으면 라오스가 웃고 있다. 아이처럼 무고하고 천진하게, 소리 내어 웃고 있다. 너의 조그마한 슬픔은, 아마도 그것으로, 한동안 조그마한 위안을 품으리라.



movie



사랑받아 마땅한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키드’

얼마 전,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6개월 된 아기를 입양한 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들의 이야기다. 입양되기 전과 후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아기의 사진을 보면서 많은 이들이 안타까움에 눈물을 삼켰고, 수십만 명이 양부모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청와대에 청원했다. 조건 없이 보호받아야 마땅할 16개월 아기의 죽음을 막지 못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미안해’라는 말은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 법규 재정비와 범죄 방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다.

영화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찰리 채플린이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위대한 배우이자 감독은 작은 모자와 지팡이에 꼭 끼는 조끼, 험령한 바지를 입은 ‘방랑자’ 캐릭터를 창조해냈는데, 이는 영화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다. 아직도 고전영화를 컨셉으로 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는 방랑자의 스틸컷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The Kid

채플린의 '키드(The Kid, 1921)'는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 작품 중 하나로 초기 채플린 영화의 미학을 두루 보여준다. '웃음을 주는, 어쩌면 눈물을 짓게도 하는 영화'라는 '키드'의 첫 자막은 사실 채플린 영화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다. 언제 봐도 몽클한 명작이지만, 아동학대와 입양이라는 이슈에 관심이 높아져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

한 가난한 여인(에드나 펄비)이 자선병원에서 아기를 낳는다. 도저히 아기를 키울 형편이 못 되는 여인은 호화 저택 앞에 세워져 있는 자동차 뒷좌석에 아기를 놓고 도망친다. 곧 후회하고 차로 돌아오지만 이미 그 차는 도둑들이 훔쳐 간 후다.

대신,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찰리(찰리 채플린)'가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아기를 발견한다. 소소한 해프닝 끝에 찰리는 아기 옷에서 '이 가없는 고아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라는 메모를 읽고 아기를 집으로 데려온다. 찰리 또한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처지지만 그는 얼굴도 모르는 생모에게 부탁받은 대로 아기에게 '존'이라는 예쁜 이름도 붙여주고 사랑으로 돌본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기의 실질적인 아버지가 된 것이다. 5년 후, 존은 다 낡은 옷을 입고 있어도 아버지와 함께라면 행복하리만 한 소년으로 자라 있다.

'키드'는 졸지에 아버지가 된 찰리를 통해 버려진 아기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보여준다. 그는 가난이 아기를 키우는데 무리가 될지 어떨지 따져보기 전에 누군가는 아기를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기꺼이 그의 아버지가 되어 준다. 여기서 친모가 잠시 아기를 포기했던 것이 경제적인 이유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녀가 차 안에 아기를 놓아둔 행위에는 이 차의 주인이라면 아기를 키우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있다. 시간간격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양육비 부담을 느끼는 것은 현재 우리의 현실과 유사하다. 'N포세대'의 원조격인 '3포세대'라는 용어는 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를 의미한다. 유례없는 경제난을 겪고 있던 젊은 세대들에게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아무진 꿈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설볼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이미 세상의 빛을 본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연대책임을 갖고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위험에 노



출된 생명이 없도록 커뮤니티가 함께 돌보아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다시 슬픈 뉴스를 접하게 될지 모른다.

존이 찰리의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존을 고아원으로 데려가려 한다. 존이 아버지와 떨어지기 싫어 울며 절규하고, 찰리가 아들을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낡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는 말을 실감케 한다. 돈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지만 아이를 사랑할 줄 아는 찰리는 존에게 부족함이 없는 아버지다. 이 애뜻한 부자의 관점에서 보자면 어떤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자본의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지난 달 21일은 '키드'가 처음 미국에서 개봉한 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를 기념해 한국에서도 재개봉되어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 동시대에 무성 흑백 영화가 익숙한 관객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채플린의 몸짓에는 음성을 뛰어넘는 강한 전달력과 흡입력이 있고, 쉬지 않고 깔리는 음악도 서사를 충분히 뒷받침해 준다. 흑백 영상은 수수하면서도 고혹적이다. 특히, 찰리가 꿈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신은 내용만큼이나 환상적으로 연출된 명장면으로 꼽힌다. 비록 당대의 특수 효과는 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거기에 담긴 유머 감각만큼은 전혀 나이 들지 않았다. 조금은 낡은 형식을 극복하고 나면, 한 세기를 뛰어넘은 채플린표 휴머니즘을 맛볼 수 있다. 그것은 아마 100년 후에도 기념하게 될 변치 않는 가치가 아닐까.

News Vol.248

위원회 뉴스

위원회 조정중재시스템 리뉴얼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기존 조정중재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새롭게 오픈했다. 이번 시스템 재개발은 기존 조사관 및 중재위원 업무시스템을 통합해 업무효율을 증진하고, 이용자가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쉽게 조정·중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 논문 공모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1호(2021년 4월 발간)에 수록할 논문을 공모한다. 이번 호의 기획논문 주제는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40주년] 언론중재위원회의 사회적 기능과 언론중재제도에 대한 검토>로 제안서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 기타 표현의 자유, 인격권 등 언론법제 관련 연구논문 마감은 3월 14일 자정이다.

위원회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위원회는 '청소년 언론중재스쿨'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수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인증기간은 2020년 12월 29일부터 3년이다.

제1차 예비법조인연수 실시

위원회(이석형 위원장)는 2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90명을 대상으로 예비법조인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이석형 위원장의 '언론중재위원회의 현황과 미래' 등 미디어와 언론법제 관련 전문가 강연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비대면 원격 강의로 진행된다.

위원 동정

김영주 위원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건”을 통해 본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진단” 긴급 간담회 참석

김영주 위원(서울제6중재부·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1월 7일 국회에서 열린 “양천 입양 아동 학대사건”을 통해 본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 진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위원은 “각 부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진상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현장에서 구현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

